

혈액 투석 환자에게 발생한 자발성 대퇴 혈종 1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 흉부외과학교실², 영상의학과교실³

최병관¹ · 신성준¹ · 김경수¹ · 이정상¹ · 최재성² · 권재현³ · 강혁주¹

A Case of Spontaneous Thigh Hematoma in a Hemodialysis Patient

Byong Kwan Choi¹, Sung Joon Shin¹, Kyung Soo Kim¹
Jung Sang Lee¹, Jae-Sung Choi², Jaehyun Kwon³ and Hyeok-Joo Kang¹

¹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²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³Department of Radiology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혈액 응고장애는 말기 신부전에서 잘 알려진 합병증으로 원치 않는 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흔히 사용되는 아스피린이나 투석시 사용되는 헤파린과 같은 약제는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외상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출혈은 흔치 않다. 이에 저자 등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LMWH, enoxaparin)**을 사용 후 대퇴동맥에서의 자발성 출혈을 경험하였기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당뇨로 인한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치료 중인 64세 여자로서 저혈당 증세로 입원하였다. 환자는 아스피린을 포함한 다양한 약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환자는 입원 15일에 갑작스런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흉부 X선 검사에서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었고 심전도 검사상 V2-4에서 T파가 역위되었다. 심근 효소치는 정상 범위였으나 심초음파상 수축기 심박출율이 35-40%로 감소되었고 심중격을 비롯한 좌심실의 무운동증이 관찰되었다. 급성 심혈관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치료로 복용중이던 아스피린은 유지하면서 LMWH를 투여하였다. 이 후 증상 호전을 보였고 흉부 X-ray상 폐부종도 감소되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계획하였으나, LMWH 투여 10일째 환자는 갑작스런 우측 대퇴 부위의 종창과 통증을 호소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우측 대퇴 부위는 외상 흔적은 없었고 과거력상 특이 병력도 없었다. 이학적 검진 상 우측 발등 동맥의 맥박은 약하게 촉진되었고 혈액검사 상 혈색소는 6.7 mg/dL, 혈소판은 137,000/ μ L이었다. 하지 혈관 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지 혈관 CT 촬영을 시행했고 우측 대퇴심부동맥에서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대퇴심부동맥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대퇴심부동맥에서 기원한 근육가지들의 출혈 소견이 발견되어 색전술을 통해 출혈을 성공적으로 멈추었다. 항응고 치료는 중단하였다. 그러나 색전술 이 후에도 종창 및 혈색소의 감소 소견이 지속되어 3일 후 다시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이전의 출혈 부위와는 다른 근육가지에서의 새로운 출혈 소견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색전술을 시행 할만한 크기의 동맥 출혈은 없어 수혈 및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다. 이 후 종창은 감소하고 혈색소도 점차 증가되었다. 입원 두 달 후 우측 대퇴 부위 종창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혈색소도 유지되어 환자는 퇴원하였다. 퇴원 2주 후 외래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심장 초음파에서도 수축기 심박출율이 65%로 호전되었다. 현재 환자는 혈액 투석을 하면서 경과 관찰 중이다.

Key Words : 자발성 대퇴 혈종, 혈액투석

Spontaneous thigh hematoma, Hemodialysis